

# 韓 고용률 69%, OECD '평균 이하'

2분기 38개 회원국 중 28위 그쳐 40대·29세이하 일자리수 줄어든 탓 일본 79%로 5위, 아이슬란드 1위 여성 고용율 더 낮아... 61%로 30위

지난 2분기 우리나라는 각국 고용률 비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또다시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올 들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40대 및 29세이하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24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4~6월에 15~64세 고용률이 69.2%로 집계됐다. OECD 평균(70.1%)에 못 미친 데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나라 고용률은 1분기(66.7%)와 2분기(65.4%), 3분기(65.6%), 4분기

(65.6%) 등으로 다소 주춤한 바 있다. 2021년에도 65%~67%에 머물다가 2022년과 올해 1분기에 68%대를 기록했다.

최근 69%대로 올라섰으나 여타 주요국 수치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일본이 78.9%로 5위에 올랐다. 일본의 경우, 아이슬란드(84.7%)와 네덜란드(82.5%), 스위스(80.7%), 뉴질랜드(80.3%) 등과 함께 국민 5명 중 4명가량이 직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스웨덴과 호주,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가 75%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또 에스토니아(11위·76.6%)를 비롯해 체코(14위), 헝가리(15위), 리투아니아(19위), 슬로베니아(20위), 슬로바키아(22위), 폴란드(24위), 라트비아(25위·71.8%) 등도 한국에 앞섰다.

이 밖에 캐나다(12위), 영국(13위), 미국(23위) 포르투갈(21위) 등이 72%

~76%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여성에 국한한 고용률은 더 낮았다.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61.4%로 30위로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본 역시 전체 고용률에 견줘 여자 고용률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캐나다와 함께 73.3%를 기록해 12위에 올랐다. 이스라엘(23위·68.7%)과 미국(25위·67.4%) 등도 한국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남성 고용률(76.9%)에서 20위에 올랐으나 OECD 평균(77.0%)을 넘어서진 못했다.

남자 부문은 네덜란드(86.1%)가 1위, 스위스·일본(84.4%)이 3위 독일(81.0%)이 7위, 영국(79.4%)이 9위, 스웨덴(79.4%)이 10위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 15~29세 취업자 수가 10개월(전년동월대비) 연속으로 줄었다. 40대는 1년 2개월째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황금연휴' 앞둔 인천공항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중소 특별자금 21.3조 공급

금융위, 추석 연휴 자금지원 방안 산은·기업은행 13조, 신보서 8.3조 은행권서 78.4조 규모 대출도 마련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기간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2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카드결제 대금도 최대 7일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21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의 신규대출과 7조2000억원의 만기연장을 통해 총 13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수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1조8000억원, 만기연장은 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

한다. 신규대출은 총 31조3000억원, 만기연장은 47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 기간은 오는 10월 13일 까지며,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하면 추석명절 특별자금 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영세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일을 최대 7일 앞당긴다. 연매출 5~30억원의 중소기업 44만 4000개가 대상이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26일 결제된 카드대금은 다음달 4일입금되어 하지만, 27일로 최대 7일 앞당겨진다. 26일과 27일 결제된 대금은 다음달 4일과 5일로 1일 앞당겨진다.

추석 연휴기간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비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없애고, 연체이자없이 자동 만기되도록 조치했다. 예컨대 추석 연휴기간 상환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자는 10월 4일로 자동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 싶은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27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또 각종 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 영끌족, 월소득 44% 원리금상환에 써야

>> 1면 '美 고금리 장기화 예고'서 계속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안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9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대보다 조금 내리겠다는 상황이어서 이와 연계된 대출 금리는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영끌족들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간 가격대의 집을 마련한 사람은 매월 가구 소득

의 절반 가량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로 집계됐다. 이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월 소득의 44%를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담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늘고 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515조 6173억원으로 8월 말(514조 9997억원) 대비 6176억원 늘었다. 8월엔 1조 5912억원 늘었다. 2021년 11월(2조 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예적금 만기 일정이 몰려 있어 은행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도 우려된다"라며 "원리금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